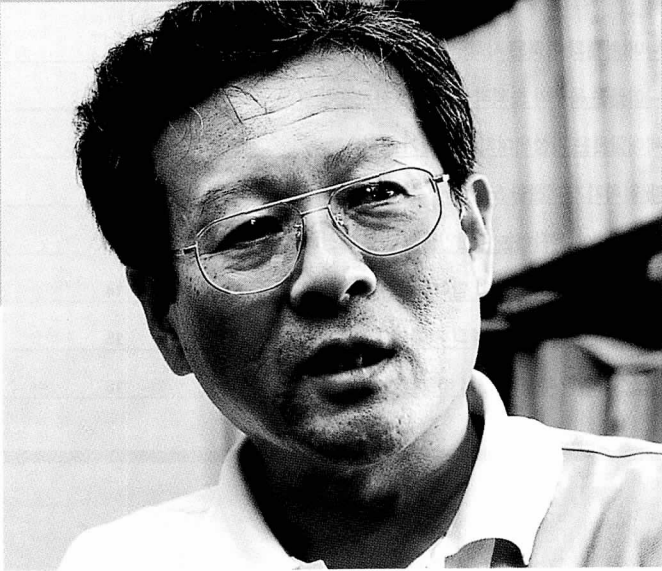


# 학계의 통설 뒤집은 2천년 신라통사

《신라의 역사(전2권)》 펴낸 이종욱 교수



3천년 전 경주 지역에 강성한 소국(小國)이 등장했다. 북방 유이민족으로 추정되는 말 탄 사람들이 토착민들을 누르고 그곳에 국가의 터를 잡았다. 이들은 곧장 한손에 칼을 들고 정복사업을 펼쳤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선진 중국에 공물을 바치며 신성권력을 승인받았다. 이 나라는 기원전 1~3세기에 이르러 자질구레한 소국들을 모두 무릎 꿇리고 지금의 경북 일대를 장악한 대국으로 성장한다.

이 나라가 우리가 배운 신라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역사연표를 외우고 있는 중학생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신라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국사교과서에 신라는 내물왕 집권 기인 4세기에 그 역사가 시작된다고 나오니 말이다.

### 주류사학에 도전해온 학계의 이단아

그러나 이것은 재야의 주장이 아니다. 《신라의 역사(전2권)》란 역사서에서 개진되고 있는 주장이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학계의 이단아로 소문이 자자한 이종욱 교수(57, 서강대 사학과)다. 그는 스승 이기백 교수의 학설을 전면 반박하는 석사논문을 쓰기도 논리가 탄탄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후, 20여년 간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책은 그가 그동안 쓴 1백여편의 논문을 합친 것으로, 그 내용을 잠깐 접어두고 본다면, 신라의 건국과 멸망까지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을 다룬 본격적인 통사라 할 만하다. 이런 본격적인 체계를 갖춘 신라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통사를 쓴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이교수는 손부터 내젓는다.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신라사 전체의 골격만 잡은 셈이죠. 세부적으로는 아직 보충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책을 낸 지 며칠만에

이종욱 교수가 기존의 정통 신라사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신라통사를 펴냈다. 이 책은 신라의 역사가 2천년이며, 신라가 귀족 중심 국가가 아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족주의적 역사해석의 산물인 신라의 삼국통일 및 발해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는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인 《삼국지》 한조를 사료비판하고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신라건국신화를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한 결과다.

벌써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았거든요.”

그의 이번 책 출간은 오랜 세월의 공력이 쌓인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두른 감도 없지 않다. 그의 학설이 도둑맞고 있다며, 이 참에 통사를 한권 펴내 학설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주변에서 충고해줬기 때문이다. 도둑을 맞다니? 이유는 간단하다. 학자들이 학술 발표할 때, 그의 견해를 직접 인용했다가는 논문 발표의 기회가 봉쇄될 것을 두려워해 할 수 없이 은밀히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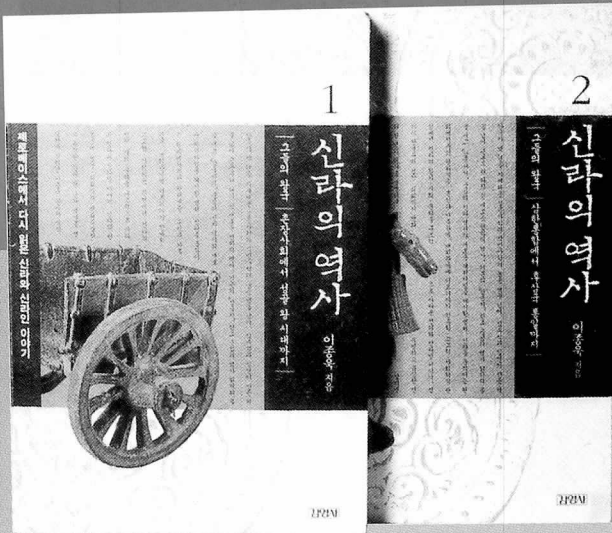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증거니까요. 그전 50년 전에 이미 굳어진 주류 사학의 정설에 의견을 보태는 데 만족하는 풍토에서 보면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삼국지》 한조 대신에 《삼국사기》 적극 끌어들이

이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신라사는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다. 중국의 《삼국지》 한조에 따라 신라의 건국을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한조는 신라가 3세기경에 한반도 남쪽 조그만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이교수는 신라의 역사가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는 《삼국사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니고, 엄격한 사료비판을 거치고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춘장사회 발전사와 비교해봐도 기원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이교수는 말한다.

“《삼국지》 한조는 정통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국의 사정을 기록한 풍물지에 불과하죠. 이런 책을 사료로 끌어들이는 건 바로 쓰다 소키치 같은 식민지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선학들이 이를 비판 없이 따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책은 《삼국사기》에 나온 내물왕 이전 기록과 신라 건국신화를 적극 끌어들이 신라사 2천년을 재구성한다. 총 9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먼저 신화를 통한 역사 읽기가 왜 필요한지 역설한다. 그리고 시대를 새롭게 구분했다. 예전에는 4세기 이전이 삭제된 터라 신라 초기 즉장→소국→연맹왕국→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구분했는데, 이교수는 이를 춘장사회→소국→소국연맹→소국병합한 이사금 시대→마립



김영사/A5변형/382면 내외/각 14,900원

간 시대→성골왕 시대로 세분하고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신라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기존에는 신라가 내물왕대에 갑자기 세력이 커져서 주변국들을 통합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애집니다. 역사가 제대로 성립되려면 촌장사회, 촌장사회의 연맹체, 소국단계, 소국의 병합단계 등을 따라 점점 지배자의 권력이 강화돼 내물왕에 이르렀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또한 신라가 결코 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성골 왕과 그 친족들에 의해 강력하게 다스려진 나라가 바로 신라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 후기에나 제대로 기능했을 화백제도(만장일치제)를 들어 신라가 귀족 사회였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바로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인데, 여기엔 신라왕족의 얽히고 설킨 친족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 통일신라 등 잘못된 역사용어 바로잡아

이교수는 신라사를 왜곡해온 민족주의적 견해도 비판의 도마에 올리고 있다.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족의 입지를 좁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이 삼국 사이에 같은 종족, 민족이란 개념도 없었는데 무슨 통일이나며 이교수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삼한통합이라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가 불 때 발해를 한국사에 끌어들이는 거의 ‘회국’이다. 발해를 세운 집권 세력이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속말말갈족’이기 때문이다. 세계사에서도 한국사에 발해를 넣는 사례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교수는 캐나다 유학시절 정구 고고학 과정을 밟았다. 우리처럼 문헌자료가 부족한 고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자료를 감식하는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고고학을 전공하며 인류학과 사회학에 대한 소양도 높였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풍물지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국토에 널려 있는 유적의 흔적들을 더듬어가며 고대사의 모습을 살려낼 수 있었다. 그가 신라의 시작을 길게는 기원전 12~14세기로 잡는 이유도 경주지역에서 촌장사회의 흔적인 지석묘가 발견되고, 최근 조사되고 있는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 이를 증거 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고고학자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고대 유물을 설명할 때 이교수의 학설에 따라야 아귀가 맞고 편해진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0년 논란이 일었던 풍납토성에 대한 카본데이트 실험 결과 그 축조시기가 기원전 1~2세기인 것으로 나와 이교수의 학설과 일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풍납토성이 3세기 이후에 조성됐다고 말해온 학계는 “카본데이팅을 어떻게 신뢰하냐”고 반박했지만 얼마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교수가 풍납토성을 다룬 KBS <역사스페셜>에 나와 “우리가 잘못봤다”며 오류를 시인했다고 한다. 바위처럼 꿈적도 않던 학계에 맞서 외길을 걸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을 거친 국사교과서에는 잘못된 신라사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는 교과서 편수를 담당한 관학(官學) 세력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 바뀌기 힘들 것으로 생각해 안타깝습니다.”

더욱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끔 걸려오는 졸업생들의 전화다. 이들은 모두 중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인데, 이교수의 학설이 맞다고 믿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는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모순된 현실을 개탄한다고 한다. 다행히 풍납토성 이후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다. 이교수도 인정하듯 그의 학설 또한 많은 부분 역사적 추론에 의지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많다. 다만 이런 도전적인 논문에 대해 대화의 창조차 걸어 달고 있는 학계의 대응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듯하다. 하루빨리 학계 전체가 동의한 신라사의 진실을 대중들이 공유할 날이 오길 기다려본다. —강성민 기자

#### 3천원 밖에 없어서 신라사를 선택했다

이교수가 신라사를 전공으로 택한 데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 대학원 시절 같이 공부하던 연구자가 세명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선왕조실록>을 살 수 있어서 조선사를, 좀 나은 사람은 2만원짜리 <고려사>를 살 형편이 돼 고려사를, 이교수는 수중에 한푼도 없어 신라사를 택했다. 3천원짜리 <삼국사기> 밖에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스개 반 진담 반으로 입을 연 이교수는 고등학교 시절 경주에 놀러갔을 때부터 신라에 친숙함을 느꼈다고 한다. 도심 한 가운데 봉긋봉긋 솟은 왕릉과 곳곳에서 숨쉬고 있는 수많은 유물의 존재는 역사를 살아 있는 것으로 느끼게 했다. 그 원초적 이끌림이 결국 그를 신라에 묶어둔 것이다.

그는 역사에서 사실 관계를 따지는 일이 이제는 지겹다고 한다. 절대 진리란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는 것을 그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책을 써볼 계획이라고 한다.